

## 逸民論

— 『論語』에서의 「微子」, 「堯曰」篇을 中心으로 —

강 일 민

### 一. '逸民'이 등장하게 된 社會的 背景

孔子가 개탄하고 있었던 當代의 시기는 春秋時代였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天子의 권위가 몰락하고 弱肉強食의 社會적 풍조가 만연한 社會였다. 그 이전의 西周時代만 하더라도 천자가 天下의 宗主로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어, 諸侯들 사이에 멋대로 攻戰이 행하여질 수 없겠지만, 오랫동안의 平和를 통하여 여러 제후의 나라들은 국력이 크게 늘어난 반면, 周나라는 犬戎에게 패하여 平王 때에 이르러 도움을 洛邑으로 옮긴 이후로는 국세가 날로 쇠약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천자가 제후들을 통제할 능력을 잃게 되고, 제후들은 멋대로 전횡을 일삼게 되어, 남의 나라를 침략함으로써 더욱 크고 강대해진 제후들의 나라가 연이어 출현하였다. 이것은 바로 封建秩序의 파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弱肉強食의 싸움은 제후들만 벌인 게 아니라 그 밑의 大夫들 사이에서도 일어나, 결국 남의 집안을 合併시켜 강성해진 대부들이 생겨나 실제로는 제후들까지도 멋대로 지배하는 경우조차 생기게 되었다. 天子는 天子로서의 權威를 잃었고, 諸侯도 諸侯로서의 權能을 잃어갔던 것이다.

이렇듯 기존 貴族·支配層의 권위가 점차 실추됨에 따라 여러 면에서 百姓들의 곤란은 더욱 커졌다. 시간이 갈수록 貴族들의 수는 크게 늘어났으며, 동시에 下級貴族들의 생활 수준조차 점점 더 사치스러워졌다. 中國에서 한 王室을 사치스럽게 받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많은 제후들이 王처럼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경

제적인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었다. 더욱이 家臣들은 물론 그 家臣의 家臣마저 主君의 생활 방식을 따르려고 하였으니 백성들의 비참한 궁핍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귀족들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國家間·氏族間에는 물론 私的으로 수많은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내부의 疾病은 스스로 抗毒素을 낳았다. 귀족의 아들들은 모두 영지와 관직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귀족 가문의 남성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불가능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 결과 군주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빈궁에 빠지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 이 때문에 혈통이나 교육면에서는 귀족이지만, 빈곤한 점에서나 지위 면에서는 일반 백성들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이 크게 형성되었다.<sup>1)</sup>

이렇게 형성된 一群의 窮士層은 적어도 영락한 귀족의 후예들이었다. 이들은 戰士나 下級官吏, 書記 또는 庶人層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처지에서 이들의 對應方式이 一律적이었던 것은 아니었겠으나, 자기자신의 正道를 지키며 俗世를 떠나 個人의 세계를 향유하는 하나의 흐름이 나타났으니, 孔子는 이를 일컬어 ‘逸民’이라고 하였다.

## 二. ‘逸民’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論語』에 ‘逸民’이 나오는 부분은 모두 두 부분이다. 앞의 ‘微子」篇에서는 ‘逸民’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孔子의 評價와 자기자신의 處世哲學이 主調를 이루고, 뒤의 ‘堯曰」篇에서는 이른바 ‘逸民’을 이루는 人士들에 대한 登用理由에 대해 論하고 있다. 먼저 ‘微子」篇에서는 앞서 언급한 ‘隱者’들에 관한 이야기가 主를 이룬다. ‘逸民’에 관해서는 ‘微子」篇8에 나온다. 이 章에는 이른바 ‘逸民’에 해당하는 여

1) H.G. 크릴, 李成珪 譯, 『孔子—인간과 신화』, 知識産業社(서울), 1994, pp.34-35.

러 사람들의 姓名이 보인다. 여기서는 우선 原文을 拔萃하여 解釋한 뒤, 각각의 人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考察해 보도록 하겠다.

‘逸民’으로는 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이 있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이는 伯夷와 叔齊이다. 柳下惠와 少連에 대하여 말하면,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였으나, 말이 이치에 들어맞고 행동은 생각과 합치되었으니, 그들은 이러한 따름이었다. 虞仲과 夷逸에 대하여 말하면, 숨어 살면서 멋대로 말하였으나, 몸가짐은 청결하였고, 세상을 버린 것은 때에 적절하였다. 나는 이들과 다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도 없다.”

逸民, 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 子曰: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與. 謂柳下惠·少連, 隆志辱身矣, 言中倫, 行中慮, 其斯而已矣. 謂虞仲·夷逸, 隱居放言, 身中清, 廢中權,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

(1) 伯夷와 叔齊는 孤竹君의 次子·三子로서, 父王의 遺訓을 지키기 위해 서로 王位를 양보하다가 國外로 피신하던 중 찾아가던 周 武王과의 故事로 人口에 膾炙되는 隱士들이다. 『論語』를 통틀어 孔子가 이들에 관해 언급한 곳은 「微子」篇8을 포함하여 도합 네 곳에 이른다.<sup>2)</sup> 이들의 言行은 당시의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季氏」篇12에 잘 나타나 있다.<sup>3)</sup> 또한 漢 賈誼가 ‘伯夷·叔齊는 賢明하다고 하더라도 孔夫子를 얻어 더욱 顯彰되었다’고 이른 것을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칭송케 한 것은 孔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孟子 역시 자주 이들의 이름을 칭송하고 있는데,<sup>4)</sup> 특히 『孟子』·「盡心 下」篇에서는 伯夷를 聖人·百世之師

2) 이들에 관한 『論語』기사는 다음과 같다.

○ 子曰: 伯夷·叔齊, 不念舊惡, 怨是用希[「公治長」篇23].

○ … (子貢)入曰: 伯夷·叔齊, 何人也? 曰: 古之賢人也. 曰: 怨乎? 曰: 求仁而得仁, 又何怨? … [「述而」篇14].

3) 이는 「季氏」篇12의 百姓들이 伯夷·叔齊의 죽음을 稱頌하고 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 … 伯夷·叔齊餓於首陽之下, 民到於今稱之. …

로까지 추앙한 바 있다.

前漢時代에 이르러 『史記』를 저술한 司馬遷은 『史記列傳』의 맨 첫머리를 「伯夷列傳」으로 삼으면서 이들을 추앙하는 論調의 太史公自序를 남기기도 하였다.<sup>5)</sup> 여기에서 볼 때, 「伯夷列傳」을 저술한 司馬遷의 基調는 極端的인 精神主義 내지는 唯心主義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요컨대 伯夷·叔齊가 그토록 伐紂를 만류했던 周 武王은 끝내 殷 나라를 멸망시키고 天下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伯夷·叔齊에게는 이 세상이란 올바르지 못한 惡의 세계인만큼, 타협할 여지조차 없는 墮落의 세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現世에 절망한 나머지 周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을 더럽다 하고 首陽山으로 도피해서 고사리로 연명하다가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자신의 主義·主張을 끝끝내 지키다가 죽어간 행위는 순수하고도 무구한 「節義에의 志向」을 나타내는 精神主義의 한 표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虞仲은 周 太王(古公亶父)의 아들이며 吳 泰伯의 아우로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 동생인 季歷에게 王位를 양보하고 남쪽 오랑캐 땅으로 가서 숨어살았다는 인물로서 仲雍이라고도 한다.<sup>7)</sup> 衰亡해 가는 殷은 滅하고 周를 일으키려는 遠大한 父王의 포부를 이해한 이들 兄弟는 父王의 臥病을 틈타 靈藥을 구한다는 구실로 吳 지방으로 사라졌다[一讓]. 얼마 후 父王은 薨去하였으나 이들 兄弟는 葬儀에도 불참

4) 『孟子』·「公孫丑上」, 「離婁上」, 「萬章下」, 「告子下」, 「盡心下」 등에 걸쳐 이들의 이름이 보인다.

5) 「伯夷列傳」에 대한 太史公自序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말세에는 누구든지 이해를 다투었으나, 다만 伯夷·叔齊만은 한결같이 義를 존중하여, 나라를 양보하고 굶어 죽어, 천하가 그를 칭송했다. 그래서 第一에 「伯夷列傳」을 저술했다.

6) 洪錫寶 譯, 『史記列傳』, 三省出版社(서울), 1993, p.24.

7) 이는 『論語集註』에 따른 것이고, 『史記』·「吳泰伯世家」下文에 의거해서 虞仲은 仲雍의 曾孫이라는 說도 있다. 또한 日本의 安井息軒 등은 虞仲이 上記 以外の 別人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鄭璣, 「論語의 登場人物抄」, 『論語와 孔子』, 圓光大學校出版局(益山), 1986, p.338을 참조할 것. 以後의 「逸民」에 대한 人物 解說註에 관해서 이 論文을 이용할 것임.

하였다[二讓]. 後嗣를 잇게 된 季歷 또한 이들을 다시 모셔 오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도리어 이들은 斷髮·文身하여 蠻夷의 흉내조차 내게 되었다[三讓].<sup>8)</sup>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부득이한 것이라는 것을 백성로 하여금 믿게 한 處事가 王子로서는 쉬이 해낼 수 없는 일이었기에 孔子는 ‘泰伯의 지극한 德을 당시의 백성들은 칭송할 길이 없었다’고 하여,<sup>9)</sup> 바로 여기에 이들의 至德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孔子가 最高의 德으로 여겼던 謙遜을 體得한 君子像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의 伯夷·叔齊의 경우와 같이 孔子의 表彰에 의하여 그 德行이 後世에 전해진 예이기도 하다.

(3) 柳下惠는 忠言으로 君主를 섬기다 士師 벼슬에서 세 번이나 쫓겨난[三黜] 魯나라의 大夫인데, 그의 言行은 다른 ‘逸民’들과는 조금 다른 바가 있다.<sup>10)</sup> 또한 파직을 당하면서도 떠날 줄을 모르고 또 기다리고만 있는 그의 태도는 孔子의 이른바 ‘道不行則去’나 ‘不可則止’<sup>11)</sup>의 태도와도, 그리고 당시의 ‘辟世’<sup>12)</sup>하는 隱者들의 그것과도 다른 現實適應 내지 參與에의 積極인 태도라고 보여진다. 아무튼 三黜도 개의치 않는 悠悠自適하는 君子다운 모습과 그 가운데서도 끝내 正道를 지키려 한사코 祖國을 지키려는 義人의 면모가 어우러져 後世의 儒家로부터 讚揚되어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8) 한 번 사퇴한 다음에 수락하는 것을 禮辭라고 하고, 두 번 사퇴한 다음에 수락하는 것을 固辭라고 하며, 세 번 사퇴하여 끝내 수락하지 않는 것을 終辭라고 하는데, 泰伯과 虞仲 兄弟는 바로 세 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鄭璣, 『孔子思想의 人間學的 研究』, 東國大學校出版部(서울), 1975, p.219.

9) 子曰: 泰伯, 其可謂至德也已矣. 三以天下讓, 民無得而稱焉. [「泰伯」篇1].

10) 柳下惠의 姓은 展, 名은 獲, 字는 禽이다. 以後 孔孟之徒로부터 賢者로서 찬양되어졌다. 鄭璣, 위의 책, pp.342-345. 다음은 柳下惠에 관한 『論語』의 기술 내용이다.

○ 子曰: 臧文仲其竊位者與. 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也. [「衛靈公」篇13].

○ 柳下惠爲士師, 三黜. 人曰: 子未可以去乎? 曰: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微子」篇2].

11) 「先進」篇23.

12) 「微子」篇6.

(4) 夷逸과 朱張은 옛 隱士로서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각각 『尸子』<sup>13)</sup>와 『漢書』·『古今人表』<sup>14)</sup>에 보인다. 少蓮은 東夷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禮記』·『雜記』<sup>15)</sup>에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이들에 대한 소개는 集註를 들춰보아도 그 량이 얼마 되지 않아 면밀히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 역시 孔子가 '逸民'의 範疇에 포함시킨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草野에 묻혀 자신의 志操를 지키며 隱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임에는 분명하다.

### 三. '逸民'과 隱者類는 어떻게 다른가?

『論語』·『微子』篇에는 이들 '逸民'과 비슷한 삶의 방식을 택한 一群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隱者'라고 한다. 孔子를 '세상을 꺾어 다니는 사람[辟人之士]'이라 부르는 長沮와 桀溺<sup>16)</sup>을 비롯하여, 孔子가 직접 隱者라 칭한 荷蓀杖人,<sup>17)</sup> 楚나라의 미치광이로 알려진 接輿<sup>18)</sup>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비록 그 하는 일이 미천하지만, 長沮의 경우 '孔丘'라는 이름만 듣고도 그가 魯나라의 孔子임을 알았고, 桀溺과 接輿의 경우에는 孔子의 학문과 노력이 당시의 세상에 맞지 않음을 꼬집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지식과

13) 『尸子』에 이르기를, “夷逸은 夷流諸의 後裔다. 或者가 그에게 베풀할 것을 권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라는 사람은 예컨대 곧 소(牛)다. 차라리 田野에서 耕作할지언정 櫛을 걸치고 廟에 들어가 養가 될 마음은 없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기록과 『論語』 以外の 기록은 없다. 鄭璣, 앞의 책, p.346에서 재인용.

14) 朱張 또한 이 기록 이외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魏 王弼註에 따르면 “字는 子弓, 筍卿은 그를 孔子에 견주기까지 하다(『筍子』·『非十二子』). 『論語』에 詳述이 없음은 孔子와 견줄 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出典을 밝히고 있지 않으니 확실하지는 않다. 또한 앞서의 夷逸과 朱張을 人名이 아니라 分類上的의 目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鄭璣, 위의 책, pp.306-307.

15) 『禮記』에서는,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少蓮·大蓮, 善히 喪에 居하다. 三日 不食하고 三月 不解하며, 期[一年] 悲哀하고 三年 憂鬱하다. 東夷의 後裔다.’”라고 하였다. 鄭璣, 위의 책, p.316에서 재인용.

16) 『論語』·『微子』篇6.

17) 『微子』篇7.

18) 『微子』篇5.

소양으로 미루어 이들이 영락한 귀족의 후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하여 이들을 初期 道家의 思想家들로 보는 일부의 견해도 있다.<sup>19)</sup>

그렇다면 우리가 論하고자 하는 ‘逸民’은 이들과 어떻게 다른가? 물론 이들도 上記한 隱者類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孔子의 말을 비교해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桀溺의 말을 두고 孔子는 자신과 孔門을 ‘辟人之士’로밖에 보지 않는데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항변하는 것이 같은 章에 보인다. 또한 「憲問」篇에 나오는 微生畝<sup>20)</sup>가 어느날 孔子를 曲解하여 물었을 때, 孔子는 ‘非敢爲佞也<sup>21)</sup>’라고 겸손하게 응수하면서 자신의 ‘疾固’를 굳이 ‘爲佞’이라고 誤解하고 있는 隱者들을 은근히 꼬집는 바 있다.<sup>22)</sup> 그러나 孔子가 ‘逸民’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때, 이들의 학문과 소양이 높은 점과 적어도 이들의 행적이 儒家의 眼目으로 보아서도 그리 흠잡을 수 없는 것임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隱者類와 上記했던 ‘逸民’들의 言行을 비교해 보면, 隱者類는 한결같이 非妥協의이며 消極的·破壞的인 면을 보여 주고 있는데 반해, ‘逸民’은 노상 批判的 關心을 갖고 泰然自若한 誠實性 속에서도 建設的인 積極性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2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逸民’을 隱者類와 혼동할 수가 있는 까닭은, 孔子가 자신과 ‘逸民’의 異同을 비교하는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상황에 따라 進退를 거듭하는 그와는 달리,<sup>24)</sup> 이들은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 스

19) 金學主, 『老子와 道家思想』, 太陽文化社(서울), 1978, pp.59-64.

20) 朱子는 集註에서 ‘그의 말투가 매우 고자세인 점과 孔子를 丘라고 부르고 있는 점을 볼 때, 그는 當代의 有德한 隱者가 분명하다’고 하였다.

21) 「憲問」篇33.

22) 鄭璣, 「人間 孔子와 <斯人主義>」, 韓國孔子學會 編, 『孔子思想과 現代』, 思社研(서울), 1985, pp.60-63.

23) 鄭璣, 『孔子思想의 人間學的 研究』, pp.260-265.

24) 孔子의 이러한 去就方式에 대해 孟子는 ‘속히 물러나야겠으면 물러서고, 오래 머무를 만 하면 머물고, 그대로 있을 만 하면 있고, 벼슬할 만 하면 벼슬살이를 하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 可以速而速, 可以久而久, 可以處而處, 可以仕而仕, 孔子也. [『孟子』·「萬章下」].

스로 俗世를 떠나 隱逸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四. 왜 ‘逸民’이라 하였는가?

그렇다면 왜 이들을 일컬어 ‘逸民’이라 하였는가? ‘逸民’의 辭典的 의미는 ‘세상을 피하여 숨어사는 사람’ 정도로 풀이되어 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세상을 피해 사는 사람들 중에서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범죄자들까지 포함해야 할 지경이다. 물론 ‘逸’字에는 ‘달아나다’<sup>25)</sup>라는 의미도 있기는 하다.

‘逸民’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逸’字에 대한 사전적 고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逸’은 ‘숨다’, ‘隱逸하다’ 또는 ‘隱士’<sup>26)</sup>라는 뜻과 ‘뛰어나다’, ‘빠어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글자이다. 즉, 여기서의 ‘逸’은 앞서와 같이 막연하게 풀이하기보다는 ‘隱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 言行이 뛰어난’ 정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째서 ‘逸民’들이 ‘逸’해야만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三章에서 ‘逸民’과 隱者類의 상이점을 論하면서 밝혔듯이, 이들이 固守하고자 하는 ‘節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逸’의 의미에 ‘志操을 지키는’이라는 뜻을 追加하는 것이 보다 眞意에 가까운 해석이 된다.

‘民’은 그 字源上으로 草木의 싹이 많이 나 있는 모양을 그려, 土地에 의지하여 사는 많은 사람, 곧 ‘百姓’을 뜻하는 象形字이다.<sup>27)</sup> 따라서 이들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古代의 사회경제적 구조상 被支配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찰에 비추어 볼 때, ‘逸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以前 支配階級의 일원임은 명백

25) 이러한 例로써 『春秋左氏傳』의 ‘隨侯逸’이라는 文章을 들 수 있다. 李家源·任昌淳 監修, 『東亞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서울), 1994, pp.1238-1239에서 재 인용하였음. 이하 上同.

26) 이러한 例로써 『南史』의 ‘舉逸拔才’라는 文章을 들 수 있다.

27) 위의 책, p.639.



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쩌서 이들을 ‘民’이라 일컫은 것인가?

우리가 보통 ‘사람’과 ‘백성’이라고 해석하는 ‘人’과 ‘民’은 『論語』에서 그 쓰임이 다르다. 즉 ‘愛人’과 ‘使民’의 차이, ‘誨人’과 ‘教民’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人을 사랑함’과 ‘民을 사역시킴’은 같지 않고, ‘人을 교육시킴’과 ‘民을 군사훈련시킴’ 또한 구별되어진다.<sup>28)</sup> 그리고 이러한 점이 ‘人’과 ‘民’이 각각 支配·被支配 階級이었음을 증명하는 주요 論據가 된다. 하지만 ‘逸民’은 ‘民’과 같지 않다.<sup>29)</sup> 上記한 바와

28) 이러한 논의의 대표적인 例인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는 孔子가 愚民政治를 주장하는데 쓰였다고 趙紀彬은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可’와 ‘不可’의 文字 自體의 解釋上의 문제를 들어 이를 反駁하면서 기존의 孔子의 ‘民本思想’을 옹호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朴世英, 「民의 편에 선 孔子의 思想體系」, 韓國孔子學會 編, 앞의 책, pp.106-108. 더불어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孔子의 政治思想의 一部일 뿐이며 그의 政治思想의 核心은 ‘正名’의 理想과 연계된 ‘德治·禮治思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참조할 것. 자세한 것은 尹絲淳, 「孔子思想의 現代의 解釋」, 위의 책, pp.123-125.

29) 이에 대하여 趙紀彬은 ‘逸民’과 ‘民’의 차이를 논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論語』에서는 오로지 ‘人’의 경우에만 ‘姓名’을 적는다는 점이다. 반대로 ‘民’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論語』의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姓名을 거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春秋時代의 ‘民’은 —가축과 동류로 취급되는— 생산력을 담당하는 계층이기에 姓名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逸民’을 언급할 때에는 일곱 명의 姓名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둘째, 『論語』에서는 오로지 ‘人’의 경우에만 ‘발언권[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오직 ‘人’만이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言行’을 지니고 있었다. 반대로 春秋時代의 ‘民’은 그러한 ‘言’의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주목할 만한 ‘行’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逸民’은 ‘숨어살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말이 조리에 맞고 행실은 사려에 부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관직에서 축출’되거나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는 정치적 신분이 있다. 또한 그들의 ‘뜻[志]’에도 지조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보면, 春秋時代의 ‘逸民’이 정치적 지위가 높으며, 결코 ‘民’과 동일하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다.

셋째, 『論語』에서는 오로지 ‘人’의 경우에만 ‘등용[擧]’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民’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즉, ‘擧賢’의 목적은 ‘民服’에 있는 것이지, ‘擧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逸民’은 등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등용하면 ‘천하 백성이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逸民’과 ‘民’이 명칭 상으로 쉽게 혼용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의 계급이 아님은 매우 명백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趙紀彬, 조남호·신정근 共譯, 『反論語(原題: 論語新探)』, 예문서원(서울), 1996, pp.67-72.

같이 이들의 원래 신분은 지배 계층[人]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逸人’ 이 아니라 ‘逸民’으로 부르는 까닭은, 이들이 政治界를 떠나 民間에 隱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여기서의 ‘民’은 被支配 階級이 아닌 ‘知識人’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の 논의를 정리하여 ‘逸民’을 定義하면 ‘志操를 지켜 草野에 묻혀 사는 知識人’로서 批判的 關心을 지니고 泰然自若한 誠實性 속에서 建設的인 積極性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五. 왜 ‘逸民’을 등용하려 하였는가?

이제까지 筆者는 『論語』·「微子」篇의 내용을 중심으로 ‘逸民’의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逸民’이란 구절은 이외에도 『論語』·「堯曰」篇에 다시 등장한다. 바로 여기서 孔子는 자신이 말했던 ‘逸民’의 登用理由를 論하고 있다.

「堯曰」篇은 『論語』의 大尾를 장식하는 篇으로, 첫 두 章의 길이가 다른 篇들의 章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긴 편에 속한다. ‘逸民’에 대한 이야기는 그 첫 章 중간 부분에 나온다.

… 삼가 도량형을 바로잡고, 법도를 잘 살피었으며, 버려졌던 관직을 잘 닦아, 온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행해지게 되었다. 멸망한 나라를 부흥시켜 주고, 끊어진 世를 다시 이어 주며, ‘逸民’을 등용하니, 천하 백성들의 마음이 되돌아오게 되었다…

… 謹權量, 審法度, 脩廢官, 四方之政行焉. 興滅國, 繼絕世, 舉逸民, 天下之民歸心焉. …

이 章의 내용은 聖君으로 일컬어지는 堯·舜·禹·湯의 禪位 과정에서의 訓戒가 主를 이룬다. 그런데, 어째서 이 부분에서 孔子가 ‘逸民’을 언급하였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다음 부분에 이어지는 ‘寬則得衆, 信則民任’의 의미에 주목해야만 한다. 앞서 「微子」篇에서 등장한 ‘逸民’들의 면면에는 모두 ‘節義’에 대한 무한한 欽慕가 흐르고 있

음을 상기하자. 즉, 민중 속에 파고든 이들 '逸民'에게는 그 志操에 대한 백성들의 推仰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을 관대하게 등용할 경우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寬則得衆], 이들의 信義가 있어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기에[信則民任], 새로 禪位받은 天子일수록 百姓의 지지를 얻고 안정된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들의 등용[舉逸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孔子의 '逸民'에 대한 해석은 以後의 中國社會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여 혼란스러운 시기가 到來했을 때 이와 같은 행동 방식을 취한 사람들이 증가해 하나의 사회적 풍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後漢書』에서 正史로서는 최초로 「逸民傳」을 배정한 것은 앞서의 해석에 대한 좋은 論據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逸民傳」의 序文은 『文選』에도 수록되어 있는 名文인데, 그 내용에는 王莽의 찬탈에 분개하여 官爵을 버렸던 지식인이 무수히 많았다는 점, 그리고 後漢時代가 되자 朝廷이 이들 '逸民'을 禮로써 맞아들였다는 점 등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後漢 末期, 宦官 專權의 시대가 오자 在野 知識人들은 朝廷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고대의 '逸民'과 마찬가지로 속세에 대한 뜻을 끊고 고결한 생활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1)</sup>

요컨대 封建的 秩序가 무너져 가던 春秋時代를 개탄하고 있던 孔子가 '周 王朝의 文物·制度를 繼承[從周]'하기 위해서는 百姓의 信望을 한몸에 받으면서 正道를 지켜 行動하는 '逸民'을 등용하려 했던 것은 必然的인 結論이었을 것이다.

30) 李璿明, 『中國歷史·上』, 新書苑(서울), 1994, p.259.

31) 『後漢書』의 내용은 宋 范曄撰의 板本[中華書局(臺北), 第十冊, pp.2755-2757]을 참조하였다.

○ … 漢室中微, 王莽篡位, 士之蘊籍義憤甚矣. 是時裂冠毀冕, 相攜持而去之者, 蓋不可勝數. … 光武側席幽人, 求之若不及, 旌帛蒲車之微賁, 相望於殿中矣. … 群方咸遂, 志士懷仁, 斯固所謂: 舉逸民天下歸心者乎! … 自後帝德稍衰, 邪孽當朝, 處子耿介, 羞與卿相等列, 至乃抗憤而不顧, 多失其中行焉. 蓋錄其絕鹿不反, 同夫作者, 列之此篇. …

## 六. 맺는 말

‘逸民’은 또한 ‘高士’라고도 불리웠다고 한다. 이는 ‘고상한 뜻을 가진 名士’라는 의미이다. 後漢 이후 魏·晉·南北朝 時代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은 것은, 君臣 관계에 들어가거나 이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한 德行인 ‘篤行’보다도 ‘逸民’이었다.<sup>32)</sup> 왜냐하면, ‘逸民’으로부터는 天子의 권력을 가지고도 그 뜻을 빼앗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sup>33)</sup>

앞서의 伯夷와 叔齊도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 이들이야말로 周 武王도 臣下로써 부릴 수 없었고, 太公望 呂常도 벗으로 삼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말이다.

물론 時代가 바뀌어 가면서 ‘逸民’의 의미가 변질되기도 했다. 즉, 소위 ‘逸民’을 自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最上の 기회가 찾아오기까지는 마지못해 ‘逸民’의 모습을 하면서 世上을 속이려는 거짓된 高士도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을 참된 ‘逸民’이 아니다. ‘逸民’은 비록 草野에 묻혀 살더라도 그들 자신이 지키고 있는 正道의 光輝가 民衆의 推仰을 얻어 爲政者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야[舉逸民], 비로소 빛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金學主 譯著, 『論語』, 서울大學校出版部, 1995.  
 車柱環 譯著, 『孟子』, 明文堂.  
 金敬琢 譯著, 『周易』, 明文堂, 1994.  
 洪錫寶 譯著, 『史記列傳』, 三省出版社, 1993.

32) 宮崎市定, 任仲燦·朴善姬 共譯, 『中國中世史』, 新書苑(서울), 1996, pp.26-27.

33) 이는 『周易』의 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즉 易의 ‘六爻’라는 여섯 단계를 사람의 社會的 地位에 맞추어 설명하면, 最上[上爻]에 위치한 것이 ‘逸民’이고 天子는 그 다음[五爻]에 위치하고 있다. 그 아래로부터 四爻는 公卿, 三爻는 大夫, 二爻는 士, 初爻는 庶人을 각각 가리킨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金敬琢 譯著, 『周易』, 明文堂(서울), 1995, pp.28-29를 참조할 것.

- H.G. 크릴, 李成珪 譯, 『孔子—人間과 神話』, 知識產業社, 1994.
- 韓國孔子學會 編, 『孔子思想과 現代』, 思社研, 1985.
- 鄭 璣, 『論語와 孔子』, 圓光大學校出版局(益山), 1986.
- \_\_\_\_\_, 『孔子思想의 人間學的 研究』, 東國大學校出版部, 1975.
- 趙紀彬, 조남호·신정근 共譯, 『反論語(原題 論語新探)』, 예문서원, 1996.
- 張岱年, 『玄儒評林』, 湖南人民出版社(長沙), 1985.
- 金學主, 『老子와 道家思想』, 太陽文化社, 1978.
- 宮崎市定, 任仲熾·朴善姬 共譯, 『中國 中世史』, 新書苑, 1996.
- 李瑾明, 『中國歷史』, 新書苑, 1994.